

“천개 문장 외우기 보다 행해야 도 얻어”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 (24)

계승 하나밖에 모르는 반특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반특이라고 하는 비구 하나가 새로 출가했으나 품성이 미련했다. 부처님께서는 5백의 아라한으로 하여금 날마다 그를 가르치게 했지만 3년이 지나도록 계승 하나도 알지 못했다. 나라 안의 모든 사부대중 중에 그의 미련함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였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가없이 여기시어 그를 불러 계승 하나를 일러 주셨다.

“입을 지키고 뜻을 껴안으며 몸으로 범하지 마라. 이렇게 수행하는 이라야 세간을 넘어설 수 있다.”

반특은 부처님의 인자한 은혜를 느꼈고 기쁜 마음이 열리어 한 번에 계승을 읊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나이 다 늙어서 이제야 비로소 계승 하나를 외웠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들도 모두 알고 있는 것이므로 기특하게 여길 겨러가 못 된다. 이제 너를 위하여 그 뜻을 해설해 주겠다. 첫째 몸으로 짓는 세 가지와 입으로 짓는 네 가지와 뜻으로 짓는 세 가지로 연유하는 것이니, 그것이 일어나는 바를 보고 그것이 사라지는 바를 살펴야 한다. 삼계와 5도(道)가 바퀴 돌듯 씌어 없으니, 그로 말미암아 도를 얻어서 열반이 저절로 찾아오게 된다.”

그를 위하여 한량없는 미묘한 법을 따로따로 나누어 따져 말씀해 주시자, 마음이 탁 트이면서 아라한의 도를 얻었다. 이때 5백 명의 비구니는 따로 정사에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한 비구를 보내어 너희들을 위하여 경법을 말하게 하리라. 내일은 반특의 법문이 있을 것이다.”

여러 비구니들은 그 말을 듣고 모두 미리 웃음을 띠면서 말했다.

“내일 오면 우리들이 미리 그 계승을 말하여 그가 부끄러워서 한 마디 말도 못하게 하자.” 다음날 반특이 가자 비구니들은 모두 나와서 그를 갖추어 서로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웃었다. 반특은 이내 높은 자리에 올라가 스스로를 낮추며 말했다.

“박덕하고 재주 없어서 아직도 도를 얻지 못했습니다. 완약하고 무딘 면에만 소질이 있는 사람이라 배운 것이 많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의 계승만을 알고 대략 그의 뜻을 알 뿐입니다. 이제 그 대들을 위하여 그 계승을 읊어보겠습니다. 모두들 조용히 들어 주십시오.”

이때 여러 젊은 비구니들이 미리 계승을 읊으려 했으나 입이 열리지 않았다. 비구니들은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자신들을 책망하며 머리 조아려 허물을 뉘우쳤다.

반특은 이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몸과 뜻으로 말미암아 연유하는 바와 죄와 복의 안팎과 하늘에 오르고 도를 얻음과 정신을 얻하게 단속하여 생각을 끊고 정(定)에 드는 법들을 낱알이 분별해 주었다. 그러자 바로 그 자리에서 비구니들은 그의 설법을 듣고 그의 신이함에 놀라며 모두가

아라한의 도를 얻었다.

뒷날 국왕 바사나미 부처님과 스님들을 정전의 모임에 청했다. 부처님께서는 반특의 위신을 나타내게 하려고 발우를 주시면서 뒤를 따라가게 했는데 문지기가 그를 알아보고 막으며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당신은 사문이면서도 계승 하나도 확실히 모르지 않소? 무엇 하려고 청을 받아 온 것이요? 속인인 나도 오히려 계승을 알고 있는데, 하물며 사문인 당신이겠습니까? 지혜가 없는 당신에게는 보시를 하여도 아무 이익이 없을 것이니 문 안에 들릴 수 없소.”

그래서 반특은 문 밖에서 서 있을 수밖에 없었

게 여쭙었다.

“듣건대 존자 반특은 본 성품이 우둔하여 이제야 겨우 계승 하나를 알았다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인연으로 도를 얻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배움이란 반드시 많이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요.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현자 반특은 한 계승의 이치만을 알지만, 그 정밀한 이치에 정신을 몰입하고, 몸과 입과 뜻을 고요히 하여 마치 천금같이 했습니다. 사람이 비록 많이 배웠다고 하더라도 행하지 않는다면 한갓 의식과 생각만을 얻을 뿐이니,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삽화 · 강병호

다. 부처님께서는 전각 위에 앉으셨고 물을 돌리기를 마치자, 반특은 발우 가진 팔을 펴서 멀리서 부처님께 드렸다. 왕과 신하들, 그리고 부인과 태자, 그리고 사부대중들은 팔이 들어온 것은 보이나는데 그 형상은 보이지 않으므로 괴이하게 여기면서 부처님께 물었다.

“이는 어떤 사람의 팔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는 현자 반특 비구의 팔입니다.” 왕은 말했다.

“도를 얻었습니까?” “아까 내가 발우를 가지고 따라오게 하였더니, 문지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서 팔을 뻗어 나에게 발우를 준 것뿐입니다.”

바로 반특을 정하여 들어오게 하고 왕은 부처님

그리고 세존께서는 이내 계승으로 말씀하셨다. “비록 천개의 문장을 외운다 하더라도 / 글귀의 이치가 바르지 않으면 / 하나의 요지(要旨)보다 못한 것이니 / 듣고서 생각을 없애야 된다. // 비록 천 마디 말을 외운다 하더라도 / 이치를 모르면 무슨 이익이 되랴. / 하나의 이치보다도 못한 것이니 / 듣고 행하여야 제도될 수 있다. // 비록 경전을 많이 외운다 하더라도 / 이해하지 못하면 무슨 이익이 되랴. / 하나의 법 글귀라도 이해해서 / 행하여만 도를 얻을 수 있다.”

이 계승을 같이 들은 2백 명의 비구들은 아라한의 도를 얻었고, 왕과 여러 신하, 그리고 부임과 태자들은 기뻐했다. <<비구경>> 제1권에 나온다.

동국대역경원 발행 <경률이상>에서 발행 재구성 구성=박재원 기자 wanhollo@hyunbul.com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24



칭찬이 칭찬 불러

머느리 자랑대회

도반들의 모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한 사람이 자기 머느리 자랑을 했다. 듣고 있던 또 다른 사람이 자기 머느리 자랑을 했다. 이야기 속에 함께 있다 보니 나 역시도 내 머느리 자랑을 하게 됐다. 나중엔 도반 모두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서로 머느리 자랑을 하게 됐다.

내용은 조금씩 달랐지만 이야기는 머느리들이 모두 훌륭하다는 얘기다. 사실 우리가 살아온 시대만 하더라도 그렇고 시어머니가 머느리 칭찬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도반들은 머느리와 사이가 좋은 것 같아서 신기하고 흐뭇했다.

우리 도반들이 조금 특별한 하지만 일반적으로 고부간이 예전처럼 힘든 사이기만 하다는 인식은 많이 사라진 시대라고 생각한다. 사회구조도 그렇고, 개개인의 인식이 많이 변해서 고부간의 갈등 수위나 형태가 많이 완화되고 달라진 것은 분명하다.

우리 절 신도님 중에 윤 보살님은 아들만 다섯을 두었는데, 틈만 나면 아들 머느리 자랑으로 입에 침이 마르질 않는다. 머느리하고 사이가 좋으니 사돈

어머니에게 잘 할 수 있는 것은 각자 오랜 세월 묵묵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나도 머느리 자랑이 하고 싶어 한마디 했다. 힘들고 그렇지만 칭찬도 하려고 드니 이것저것 생각지도 않던 것들이 생각났고, 말이 쉬 끝나지 않았다. 서로 머느리 자랑으로 찬양을 이야기 하다 보니 서로 자기 머느리가 최고라고 편을 들고 있었다. 그러다 서로의 모습을 보고는 크게 웃었던 기억이다. 가족에 대한 소중함은 바로 이런 것일까. 시중에 떠도는 좋지 못한 시어머니와 머느리의 유행어는 누가 잘못 퍼뜨린 루머라고 생각이 들 정도이다. 아들을 뚫고 나오는 아침 햇살처럼 우리 모두의 집집마다 아름답고 행복한 웃음이 전염되길 축원해 본다. 머느리들을 사랑하는 시어머니들이 이렇게 행복한 성토를 하고 있으니 머느리들도 함께 행복하길 빌면서 큰 박수를 보낸다.

도반의 법문

“좋은 말을 하면 입이 예뻐지고 좋은 것을 보면 눈이 예뻐지고 좋은 행동을 하면 몸이 예뻐진다.”

아침에 도반으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왔다. 기분 좋은 문자 메시지였다.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말 한 마디로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 줄 수도 있고, 말 한 마디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 작은 칭찬 하나가 실의 빠진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도 있고, 거친 말 한마디가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부르기도 한다.

아름다운 꽃이나 예술 작품을 보면 마음도 맑아지고 여유로워지지만, 나쁜 행동을 보거나 불행한 일들을 보면 기분이 좋지 못하다. 남의 나쁜 행동을 보게 되면 내 행동에 신경을 쓰게 되고, 남의 좋은 모습으로 보면 내 마음 속에도 본받고 싶은 마음이 생겨 행복해진다.

모두 알고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평소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다. 아침 일찍부터 날아온 문자 메시지는 법문이었다. 거창한 법서 위에서만 법문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점점 법서 안에 갇혀 사는 시대. 서로의 모습을 살피고 배울 기회가 많지 않다. 도반이 보내준 세 줄의 문자메시지는 내 안에 갇혀 사는 나를 깨내주었다. 문자메시지를 되새기며 생각했다.

“나는 누군가에게 좋은 본보기가 된 적이 있을까? 누군가 나의 행동으로 인해 행복해 한 적이 있을까?” 또 나의 말 한 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은 없을까? 오늘 6월 1일의 새 달을 만나 결제하는 마음으로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일을 생각하고 행동 할 것을 또 한 번 다짐 해 본다. 아무 도 몰라도 나만이라도 나를 인정 할 수 있기를 바라며...

부산 연꽃모임회장

초절전형 슈퍼에너지 전기 보일러

전국 사찰 300여곳 시공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절감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대환영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태양광 발전사업 최고의 안정성 · 수익성



노후에 “연금이 따로 있나? 태양광이 연금이다!!”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 사업은 개인에게 사업권을 부여하여 안정적 소득 창출과 향후 노후대책은 물론 지속적으로 수입을 12년 동안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 50Kw 발전 기준시 년소득 약 3,000만원 (불자우대)

내일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慧峰 합장

직통 011-335-6389, 대표전화 1688-5687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경상도 : 010-9190-3350
강원도 : 019-396-1110 전라도 : 011-248-6298
충청도 : 010-8674-23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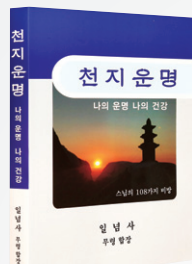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

천지운명

불자 여러분들에 건강과 운명이 수록 되어 있는 책!
부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전해 주는 책!



서산대사께서 입적하기 직전 읊은 시
나의 운명 나의 건강. 108가지 민간요법
108가지 약초 담그는 법
108가지 꽃 효소 만드는 법
치유와 깨달음의 미학, 달마도

무량지음 | 신국대판 | 474페이지 | 정가 50,000원

이 책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 만들어졌고, 첫 페이지에는 서산대사께서 입적하시기 직전에 “윤은 시”와 “권효가”가 들어있으며 우리들의 운명과 건강이 자세하게 설명 되어있습니다.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요법 즉, 효소 담그는 방법, 여러 가지 약재를 만드는 방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천지운명”은 가정에서 가족 모두가 볼 수 있게끔 특별히 각각 수록되어 있어, 모두 돌려 읽어 서로가 서로를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정말 신비로운 책입니다.

스님의 108가지 비방 소승은 나의 건강을 위해서 “약초 쓰는법” “약초 담그는 법”을 12년 동안 중국을 오가며, 연구하여 정성으로 불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중하게 한권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을 구입하시는 각 사찰 스님들께는 30%로 할인을 해드리면서, 꼭 스님분들이 알아야하는 비방법을 써서 전국 사찰 스님께 소정에 값으로 받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방법은 꼭 스님 분들만 알고 계시야 불자들이 답답하고 힘들때, 모방으로 이야기 해 줄 수 있는 아주 신비한 책으로서 다음 회에 드리려고 합니다. 전화번호와 사찰명을 잘 읽어 두었다가 꼭 주문하세요. 각 사찰 스님분들께 서는 이 책을 잘 읽어 보시고 불자들에게 많은 포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 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24-119번지
대선불교조계종 일념사 무량 합장
전화 032)655-1356 / 팩스 032)664-1356 / H P 010-6674-1356
입금계좌 : 170972-51-038226 농협 110-113-445631 신한